

현장연구를 통한 이태원 공간의 경관해석

- 외국인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

이문희* · 오재인* · 천현진* · 한위웬* · 김성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무관심했던 한국사회는 20세기 말부터 국내로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특히 같은 민족성을 가진 이주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거주지 중 하나인 이태원 지역은 한국사회 안에서 독특한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이태원은 서울 속의 다문화 공간으로 불리며, 문화소비지역으로 역할을 해왔다(김선호 등, 2014).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의 지역 중 외국인 중심지역인 상업지역과 이슬람 성원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설계 시에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사

이태원에 관련하여 수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호 등(2014)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경계 공간(liminal space)인 이태원에 대해 공통관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뉴스 담론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정은 등(2010)은 이태원의 다양한 경관적 특징이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송도영(2014)은 국내 무슬림 이주자의 구체적인 생활영역과 공간생활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장근(2013)은 이태원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인식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의 인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행되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태원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진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경관을 해석하는 연구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공간을 대상으로 문화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내의 외국인 집단거주지 중 다양한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크게 3가지 지역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첫 번째 지역은 해밀턴 호텔 주변의 음식 및 주류 상업시설로, 이 지역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은 경리단길 근처의 음식점 및 카페로 이 지역은 한국인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지역은 보광초등학교 일대 및 이슬람 성원 및 상업시설로 외국인 중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성원 및 주변의 상업시설인 외국인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대상지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경관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정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시 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관이 존재하는 공간이란 점에서 대상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내에 위치하는 외국인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징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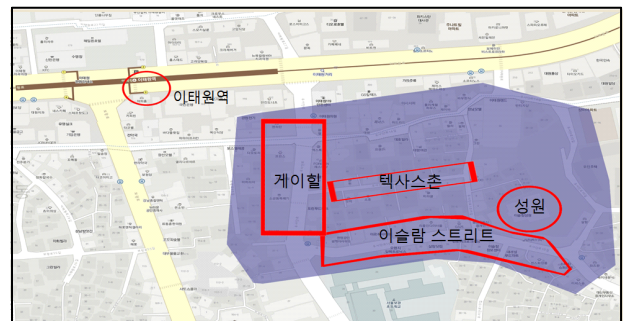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

범례: 이태원 외국인 중심지역

하여 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현장연구를 통한 관찰조사와 이 공간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I. 경관의 해석

1. 이태원의 개요

이태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9월 서울시 최초의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다. 관광특구의 범위는 이태원로 입구에서 한남2동사무소까지 1.4km 공간이 지정되었으며, 쇼핑, 관광시설 등 2,181개소, 외국공관 및 관저가 50개소가 입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함께 혼재하는 퓨전의 장소가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2. 이태원의 물리적 특징

본 연구의 대상지의 물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게이힐과 텍사스촌의 경우에는 술집과 클럽, 레스토랑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시설에는 한글간판과 영어간판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점 전면공간에 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슬람성원의 물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일한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 양식으로 된 건물이다. 또한 이슬람 성원은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예배공간도 남녀가 분리되어 있으며, 2층에 남자 예배실, 3층이 여자 예배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성원에는 부속건물로 이슬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슬람 문화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슬람 스트리트에 위치하는 상가들은 술집이나 유흥시설보다는 이슬람 서점, 편의시설,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 특유의 '할랄푸드' 가게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할랄'은 무슬림들이 먹는 고기를 말한다. 게다가 이 지역의 간판은 한글간판과 아랍어간판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3. 내부자의 관점에서의 경관해석

본 연구의 대상지를 내부자인 관점에서 경관을 해석해 보면 이태원 공간 중에서도 외국인이 주체가 되는 외국인들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간은 한국 안에 위치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공간에서는 소수자로 느끼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게이힐과 텍사스촌 지역은 이 근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외국인은 이러한 운영자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종교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그들에게 생활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이 공간에 모여들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이슬람 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 음식을 파는 음식점부터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지역 중 외국인이 중심이 되는 이슬람 성원과 주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내부자의 관점에서 경관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이태원 공간 중에서도 외국인이 주체가 되는 외국인들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간은 한국 안에 위치하는 공간임에도 외국인들이 이 공간에서는 소수자로 느끼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공간을 계획 및 설계 시에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선호, 김성은, 김승현(2014) 경계 공간의 재현: 이태원에 대한 뉴스 담론 분석. 한국기호학회지 39: 301-342.
2. 김정은, 김지나, 김효진, 정재우, 최은정, 조경진(2010) 이태원 경관 읽기. 한국조경학회지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41-146.
3. 송도영(2014) 국내 무슬림 이주자들의 생활영역과 초국적성격 -서울 이태원 출입 무슬림의 사례.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24(2): 113-153.
4. 오장근, 최중훈(2013) 도시의 감각 -도시공간 이태원의 감각적 인식을 예로 하여. 기호학 연구 36: 137-173.